

흔들리는 日本의 肥料共同輸出體制

= 價格競爭에 견딜수 있는 業體만이 參與 =
新體制에 따라 業界版圖 크게 바뀔듯

編輯者 註 : 이 原稿는 지난 10月 20日 日本經濟
新聞에 掲載된 企劃記事 「肥料輸出新體制」
를 번역한 것입니다.

「輸出이 打算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微妙한 곳까지 물리고
받았기」

「肥料」이라고 하면 關東市의 肥料株式會社가 肥料業界에서 1등이
올때까지 있다고 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肥料이 맞지 않
赤字輸出이 不可避하게 된다면 輸出을 포기하는 製造業體가 나올
은 必然的 事矣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먼저 輸出契約을 체결한
다음 各 生産業體에 出荷數量을 配當하는 이른바 *共同輸出體制
를 維持할 수 없게 되었다.

肥料業界는 지금이야말로 「輸出할 수 있는 業體만이 參與하
는 體制」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肥料業界는 尿素와 硫酸의 輸出에 대해 數量카르텔을 認定받고

있다. 日本硫安 輸出会社が 窓口가 되어 輸出契約을 締結하고 各 生産会社에서 尿素와 硫安을 사들인 다음 이를 輸出하는 形式을 取한다.

各 生産業體는 每年 輸出会社が 調整한 數量과 價格에 따라서 出荷해 왔다.

各 生産業體間에 利益幅의 差異는 있을망정 各社가 함께 큰 輸出利益을 올릴수 있었다. 量産效果를 充分히 發揮하여 國際市況의 水準을 훨씬 下廻하는 低原価를 達成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운데 數量카르텔의 機能을 살린 종래의 共同輸出體制는 極히 有効하게 作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業界全體의 共同輸出體制도 昨年以後의 肥料 특히 尿素의 國際市況 下落到 直面하여 무너지기 시작했다.

1975 肥料年度 (1975年 7 月 ~ 1976年 6 月) 下半期の 对中共 輸出交渉에서는 價格을 둘러싸고 各 生産業體間의 意見 対立으로 妥結이 늦어지는 事態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採算이 맞지않는 輸出은 할 수 없다」고 主張하는 生産業體와 「아니다 우리会社는 輸出할 수 있다」고 하는 生産業體間의 엇갈린 意見이 있어 이 調整에 時間이 걸린 때문이다.

이래서는 輸出商談을 마무리질 수 없다」는 소리가 높아져 日本 硫安工業協會의 「鈴木永二」会長 (三菱化成工業社長)도 最近 「앞으로는 契約價格에 견딜수 있는 生産業體만이 輸出한다」는 方針을

밝혔다. 數量 카르텔에 依한 輸出體制에서 빠져나가느냐, 아니냐는 各社 事情에 맡기는 體制로 移行한다는 이야기다.

輸出體制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게 된 背景은 무엇인가?

于先 國際市況下落到 依해 肥料業界 全體의 國際競爭力 低下가 一舉에 露呈된 事實을 들 수 있다.

原料인 なた, 부탄이나 電力을 비롯한 原, 燃料費의 昂騰에 따른 大幅的인 原価高로 生産效果는 完全히 없어졌다. 尿素의 國際市況은 現在 屯當 \$ 100 (FOB = 船價, 港本船度) 을 넘어 섰으나 肥料業界 平均 生産原価는 이를 上廻하고 있어 益算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確實한 狀態이다.

그러나 生産業體間에는 当然히 原価의 差異가 있다. 例컨데 生産設備의 新旧로 原価가 크게 틀린다. 電力多消費의 老朽工場을 지니고 있는 生産業體는 新統工場을 가지고 있는 生産業體에 比較하여 尿素로 屯當 3,000 円 程度 原価高가 된다고 한다.

이 差가 輸出可能한 價格의 下限의 相違点으로 나타난다. 現 狀態에서 輸出이 打算에 맞고 안 맞고는 各 生産業體에 따라 事情이 달라 現輸出 體制를 解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輸出體制下에서는 各 生産業體의 競爭力의 差가 歴然하다.

國際市況의 低迷狀態가 계속 되는限 어쩔수 없다고 말할 수 있으나 業界内에서는 「急激한 市場占有率의 變動을 피하고 싶다」

는 意向이 強하다. 原價가 싼 生産業體로 부터 비싼 生産業體로 의 製品流通을 活潑하게 하여 原價가 높은 生産業體에다 어느程度의 輸出実績을 갖도록 하자는 案도 檢討되고 있다.

業界에서도 「市況이 回復되면 輸出體제도 還元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市況回復이 언제가 될지는 展望이 서지 않는다.

市況의 低迷狀態가 長期化되면 製品流通等に 依한 克服對策도 壁에 부딪칠것은 明白하다.

國際 競爭力의 低下라고 하는 構造問題를 안고 암모니아 肥料工業을 再檢討하는 作業이 進行되고 있는 이 時点에서 불배 競爭力에 適応한 輸出이라고 하는 新體制로의 移行이 앞으로 肥料의 業界版圖를 크게 바꾸어 놓는 契機가 될 것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